

2024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주요 중점들 —
갈라디아서

메시지 12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쓸모없게 되는 것

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것

성경: 갈 5:4, 요 14:23, 15:4-5, 롬 11:17, 24, 요일 2:27, 계 21:3, 22

I.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쓸모없게 된 것이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 갈 5:4.

- A. 쓸모없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모든 유익을 빼앗기고 그분을 아무 효력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쓸모없게 되는 것은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단절되는 것이다.
- B. 우리는 우리가 참 올리브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들로서 그분을 누려야 하고, 신성하고 비밀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들로서 그분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 롬 11:17, 24, 요 15:1, 4-5, 엡 3:2, 벧전 4:10.
- C. 생명 주시는 영은 하늘에 속한 올리브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즙이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올리브나무의 진액, 즉 기름진 것인 그리스도의 풍성들에 참여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즙이신 생명 주시는 영을 접촉해야 한다 — 눅 23:31, 비교 시 92:13-14, 36:8-9.
 1.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진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이신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한다 — 고후 3:17, 롬 8:16, 고전 6:17.
 2. 우리는 “오 주님, 오 주님”하며 주님을 부를 때,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즉시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께 참여하게 된다 — 롬 10:9-13.
 3.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또 다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누리고, 기름진 것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에 참여하게 된다.
- D. 우리는 우리가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진 것을 보아야 한다. ‘본성을 거슬러’란 ‘자아를 거슬러’를 의미한다 — 롬 11:24.
 1. 우리의 옛 본성에 속한 모든 것, 즉 우리의 옛 본성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의 모든 어떠함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의 본성과 반대된다. 우리의 본성은 죄악된 본성이지만, 주님의 본성은 신성하고 영적이고 거룩한 본성이다 — 갈 5:16-17, 벧후 1:4.
 2. 모든 풍성을 지닌 올리브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하려면 우리는 야생 가지들인 우리의 옛 배경과 옛 역사와 옛 생활과 옛 습관과 옛 문화에서 완전히 잘려져야 한다 — 롬 11:24, 비교 엡 4:22-24.
 3. 옛 생활방식에서 잘려진 것을 체험하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체험을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한다 — 롬 10:6-8, 엡 6:17, 찬송가 628 장(영한 동번 866 장).
- E. 로마서 11 장은 우리가 올리브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들로서 올리브를 맺고 위로하는 기름을 산출함을 계시한다(롬 13:8-10, 갈 5:14-15). 요한복음 15 장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들로서 포도를 맺고 활기 있게 하는 포도주를 산출함을 계시한다. 누가복음 10 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눅 10:33-34).

1. 기름과 포도주가 함께하여 사람들에게 치료가 된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읽을수록 더욱 올리브와 포도를 맺어, 내적으로 상처받고 침체되고 낙심한 사람들 안으로 부을 기름과 포도주를 산출할 것이다.
2.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위로하는 기름과 활기 있게 하는 포도주를 산출할 수 있고, 종일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가지들과 합당하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몸의 생활을 누릴 것이다 — 사 55:1-11, 요 15:7, 12.
3. 올리브나무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데 쓰였다(삿 9:8-9). 이것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갈 5:16, 25), 그 영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존귀하게 함을 상징한다(고후 3:6, 8, 빌 3:3).
4. 포도나무의 포도주가 하나님과 사람의 힘을 복돋아 주는 데 쓰인 것은(삿 9:12-13) 희생하고 활기 있게 하는 생명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을 복돋아 주는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마 9:17, 아 1:4)과, 희생하고 활기 있게 하는 생명이자 힘을 복돋아 주는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후 3:6, 빌 2:17, 딤후 4:6).

II.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도록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의 실재이신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 가지들이라는 우리의 신분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고, 그분과의 교통 안에 머물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 요 15:4-5.

- A.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 오셔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 이러한 거함은 상호 거함이며, 이러한 상호 거함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수록 그분의 임재를 더 갖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수록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모든 어떠한 사랑을 더 누린다. 주님의 회복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회복이다 — 고전 2:9-10, 엡 6:24.
- B.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 요 14:21, 23, 21:15-17, 15:10.
 1.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 요일 3:23-24, 요 13:34-35.
 2. 형제 사랑에 대한 계명은 옛 계명이면서 또 새 계명이기도 하다. 옛 계명인 이유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 계명을 가졌기 때문이고, 새 계명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때에 이 계명은 새로운 서광으로 비치고, 그후에도 새로운 빛과 신선한 능력으로 계속해서 비쳐주기 때문이다 — 요일 2:7-8.
 3.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요일 4:19).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입하시고, 또 우리 안에 사랑을 산출하셨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한다(4:8, 16).
 4.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활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본에 따라 그리스도에게서 배운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활의 실지 상태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활 안에 계셨음을 보여준다 — 엡 4:20-21, 요 15:12, 17:17, 23-24, 26.
 5.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신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습관적으로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표현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는 생활을 사셨고,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활을 하여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게 하신다 —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요일 4:17.
- C. 우리 밖에 있는 성경 안의 항상 있는 말씀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신 현재의 말씀을 대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한다 — 요 5:39-40, 6:63, 고후 3:6, 계 2:7.
 1. 밖에 있는 기록된 말씀에 의해 우리는 비밀스러운 주님에 대한 설명과 정의와 표현을 갖고, 안에 있는 살아 있는 말씀에 의해 우리는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실지적인 주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을 갖는다 — 엡 5:26, 6:17-18.
 2. 우리가 주님의 항상 있는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분의 즉각적이고 살아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이다 — 요 8:31-32, 15:7, 요일 2:14.

3.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건축하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하도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다 — 요 15:7, 고후 2:17, 13:3, 고전 14:4 하.
- D.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기름 바름의 내적 가르침에 주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한다 — 요일 2:27.
1.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깨끗하게 함과 기름 바르시는 영을 우리의 내적 존재에 적용하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신성한 교통 안에 거한다 — 요 15:4-5, 요일 1:5, 7, 2:20, 27.
 2.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자 기름을 바르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내적 기름바름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분의 지체들이다 — 히 1:9, 3:14, 고후 1:21-22.
 3. 우리 안에 계신 복합되신 영께서 움직이고 일하시는 것인 기름바름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기름 바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기름 바름은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생명의 내적 감각, 즉 내적 의식에 의해 그분의 지체들에게 전달한다 — 시 133, 고전 2:16, 롬 8:6, 27.
 4.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고 우리의 영에 주의할 때 우리는 주님과 유기적인 연결을 유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 — 롬 8:6, 고후 2:13, 말 2:15-16.
 5. 머리는 몸의 지체가 움직이기를 원할 때 내적 기름바름을 통해 암시적으로 그것을 알리시고, 우리가 기름 바름에 순응할 때, 생명은 머리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롭게 흐른다. 우리가 기름 바름에 저항할 때, 우리와 머리의 관계는 방해받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흐름은 멈추게 된다 — 골 2:19, 행 16:6-7.
- E. 우리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처소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왕후로 만드시고, 그분의 왕궁, 곧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신다 — 시 45:13, 8, 요 15:4-5, 엡 5:27, 계 22:5, 롬 5:17, 비교 아 6:4.
1.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하여, 그분 안에, 곧 우리의 주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 — 요 15:4-5, 요일 4:15-16, 계 21:22, 신 33:27 상, 시 90:1.
 2. 하나님 밖에는 죄들과 환난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삶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 — 시 90:3-11, 요 16:33.
 3. 하나님을 우리의 처소와 영원한 거처로 취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높고 충만한 체험이다 — 시 91:1-16.
- F.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처로 취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의 거처가 되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구속 받고 거듭난 믿는 이들의 우주적인 합병체 안에서 사는 것이다 — 요 14:2, 10-11, 17, 20, 23.
1. 새 예루살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된 세부분으로 된 교회의 궁극적인 합병체이다 — 계 21:3, 22.
 2.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고, 장막의 중심은 감추인 만나이신 그리스도이다. 이 우주적이고, 신성하고 인간적인 합병체, 곧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가 되는 길은 감추인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 계 21:3, 출 16:32-34, 히 9:4, 계 2:17.